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6호 【루계 제24689호】 주체103(2014)년 10월 3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중앙국방 및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동 지

친애하는 김정은동지

나는 조선로동당창건 69돐(1945. 10. 10. – 2014. 10. 10.)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과 라오스인민들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과 형제적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 69년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그리고 오늘은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형제적조선인민은 주체사상과 선군의 기치따라 당의 로선과 정책실현 특히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조선로동당과 형제적조선인민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념원인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위업수행에서 보다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에 부합되게 날로 더욱 강화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숭고한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중앙국방 및 안전위원회 위원장

쭘 말리 싸이냐쏜

2014년 9월 18일 비엔티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단장인 아나똘리 돌가체브 중앙위원회 1비서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뿔레찐 발행,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 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베닌사회주의당과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에서 경축집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9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당창건기념탑》, 《평양의 밤》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하나는 조선로동당을 투철한 사상적전일체로,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변함없는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

또한 시종일관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건설과 활동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령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베닌사회주의당 부위원장 아그바훈죠 쥬스땡은 지난 세기말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가 조선에 집중되던 때에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휘황찬란한 래일에 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고 언급하고 조선로동당건설에 쌓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엠.자한기르 칸은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의 69년 력사는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인류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밑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베닌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 당창건 69돐, 《ㅌ.ㄷ》결성 88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에서 9월 26일 뿔레찐을 발행하였다.

뿔레찐은 《10월과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뜻깊은 사변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서거후 조선로동당을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조선에는 반만년민족사상 처음으로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일떠서게 되였다.

올해 10월 17일은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8돐이 되는 날이다.

《ㅌ.ㄷ》가 결성됨으로써 조선혁명은 새 출발을 하였으며 조선인민은 옳바른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게 되였다.

참으로 10월은 조선로동당의 뜻깊은 명절들이 집중되여있을 뿐아니라 조선로동당의 장구하고 빛나는 력사가 함축되여있는 매우 의의깊은 달이다.

뿔레찐은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추대 17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시던 당시 조선의 정세는 참으로 어려웠다.

이러한 시기 김정일령도자께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제시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심으로써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정책들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당건설과 당활동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뿔레찐은 《인민을 이끌어 근 70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을 헤치면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해온 우리 당의 자랑찬 력사에 대하여 서술하고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쉐.샤브돌로브가 9월 2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0월 10일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뜻깊은 날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요구, 리익을 최대로 반영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전후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고 공업화를 실현하여 조선을 강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절감하고있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는 절대적인것이며 조선인민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해나가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정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는 그들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속에 인민경제계획을 일,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숨결이 갈수록 세차게 높뛰고있다.

9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

전력공업성아래 여러 단위에서

각지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뜻깊은 올해를 높은 전력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난 9월 인민경제계획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수풍발전소와 허천강발전소, 장진강발전소와 부전강발전소의 로동계급이 인민경제의 동력을 책임진 전초병답게 전력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이 발전소들에서는 저수량이 적은 조건에 맞게 발전설비들의 운전을 과학적으로 하여 월간에 맡겨진 전력생산과제를 원만히 수행하였다.

태천발전소에서도 발전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잘하고 부하분배를 합리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였다.

화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지난 9월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올해전투에서 전력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지난 9월 인민경제계획을 117%이상 넘쳐 수행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 온 나라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올해를 자랑찬 증산성과로 빛내이려는 각지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석탄공업성에서

석탄전선에서 9월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지하막장마다에서 증산돌격의 함성드높이 힘차게 진격해온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어머니당에 올리는 충정의 보고이다.

순천지구, 덕천지구, 북창지구, 득장지구의 탄광들과 개천지구의 조양탄광, 강동지구의 흑령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이전시기보다 화력탄생산을 1.6배로 끌어올렸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탄부들의 완강한 공격전은 석탄전선에서 9월계획수행의 자랑찬 승전고로 이어졌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 9월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금야청년탄광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고 현행석탄생산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강서탄광, 삼신탄광, 전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증산의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9월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9월에 이룩한 자랑찬 생산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10월에는 더 높은 목표를 돌파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증산돌격전을 세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철도성에서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지난 9월에 증송투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이들의 불같은 노력속에 철도성적인 9월 수송계획이 100.3%로 수행되였다.

평양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최단기간에 수송능력을 부쩍 높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북창철도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분국아래 북창기관차대와 북창객화차대, 주요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 맡겨진 월 수송계획수행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개천철도국과 함흥철도국, 청진철도국에서도 혁신이 창조되였다.

혁신의 불길은 화력탄수송을 위한 보장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평양차량수리공장과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기관차와 화차수리, 철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강하는데 필요한 부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지난달에 화력탄수송량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지원철

채취기계공업지도국에서

채취기계공업지도국에서 9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할 불같은 일념안고 중요대상들에 보내줄 설비, 부속품생산을 힘있게 다그쳤다.

안주뽐프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며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필요한 뽐프를 지표별로 원만히 보내주었다.

전천착암기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면서 생산을 확대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동림광산기계공장, 동림전기공장, 장산전기공장을 비롯한 지도국아래 다른 공장의 로동계급도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채취기계설비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전혁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비단실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벼가을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친다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벼와 강냉이가을에 력량을 집중하여 익는족족 제때에 걷어들이며 탈곡도 빨리 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벼가을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일군들은 애써 지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도의 농촌들에서 가을걷이적기를 바로 정하고 벼가을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도록 기술지도를 바로해나가고있다.

도의 농촌당조직들에서는 경제선동의 력량과 수단을 농장별에 전개시켜 집중포화를 들이대는것과 함께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가을걷이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재령벌과 연백벌에서 벼가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 앞장에 령도업적단위의 농촌들이 섰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가을걷이를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최적기에 가을걷이를 끝낼 목표밑에 그 준비를 빈틈없이 해온 이들은 3일동안에 강냉이가을을 전부 끝내고 벼가을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그리하여 벌써 많은 면적의 벼가을을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재령군 래림, 안악군 오국,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재령벌과 연백벌의 다른 령도업적단위들에서도 일군들이 잘 지은 곡식을 허실없이 나라의 쌀독에 넣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남먼저 포전을 타고앉아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벼베기를 다그쳐 날마다 가을걷이실적이 부쩍 뛰여오르게 하고있다.

재령벌과 연백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벼베기에 이어 벼단묶기와 동가리치기를 따라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가을한 논배미에 한알의 낟알도 남기지 않는 주인다운 일본새를 높이 발휘하고있다.

해주시와 은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일정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고있다. 특히 봉천군과 신원군 등 강냉이농사를 많이 하고있는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강냉이가을을 불이 번쩍 나게 하고 탈곡과 수매를 따라세우면서 벼가을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본격적인 벼가을에 들어선데 맞게 도안의 농촌당일군들과 선동원들이 경제선동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의 농촌들에서는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벼단꺼들이기를 바싹 따라세우고있다.

도의 농촌들에서는 이동식벼탈곡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수단을 벌에 전개하고 포전에서 탈곡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지원

평안남도의 일군들

평안남도의 일군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지원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성과를 높여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9월 중순에만 해도 수백t의 환강, 세멘트, 수십㎥의 목재를 비롯하여 근 50종에 6 000여점의 건설자재와 작업공구, 후방물자를 싣고 현지에 나와 돌격대원들이 먹이풀판조성과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도록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돌격대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도당책임일군은 도안의 모든 단위 책임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자기 단위가 맡은 먹이풀판조성과 대상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게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도안의 건재생산기지들에 나가 로동자들의 애국적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을 생산적앙양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건재생산기지들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60여t의 환강과 500여t의 세멘트를 생산한 다음 그것을 제때에 보내주었다.

도급기관, 기업소일군들이 능숙한 전개력과 높은 창의창발성,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나가며 작업공구들과 건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였다. 그들은 현지에 나가 작업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콩크리트치기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시공지도를 기술적요구대로 할수 있게 능력있는 일군들을 선발하여 보내주었다.

시, 군들에서도 지원사업에 품을 넣었다.

평성시의 책임일군들이 남다른 모범을 보이였다. 이들은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면서 수백㎥의 널판자를 비롯한 건설자재와 후방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현지에 나갔다. 그리고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또한 많은 로력을 보충해주도록 하여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도와주었다.

순천시, 신양군에서는 먹이풀수확을 기계화할수 있도록 농기계들과 많은 건설자재를 보내주었다. 다른 시, 군들에서도 세멘트,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와 함께 돌격대원들이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후방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본사기자 정영철

《혁명은 곧 신념이며 신념이 없으면 혁명가가 될수 없습니다.》 김정은

백두의 신념으로 걷는 혁명의 길

백두산에 오르면 누구나 무한한 혁명열로 심장이 한껏 달아올라 끝없이 흥분하고 격정을 터친다. 삼천리강토의 정점을 이루며 높이 솟은 장군봉에 오르면 백두산의 웅건한 자태가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상징으로 가슴속에 들어앉는다. 만고의 항쟁사를 간직한 백두밀림은 빨찌산의 그 이야기를 전하며 솨솨— 폭풍쳐 설레인다.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더욱 억세게, 날카롭게 벼리며 우뚝 솟은 천산만악들이 백두의 신념으로 시작되고 승리해온 선군혁명의 자랑찬 로정을 전해주는것만 같고 유난히도 맑게 개인 백두산정의 차거운 공기도 좋은 날일수록 백두의 칼바람맛을 잊지 말라고 계속혁명의 의지를 가다듬게 해주어 한줄기 바람결조차 무심히 대하지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리고 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온 혁명의 성지이며 조선의 혁명적기상과 불멸의 혁명정신을 한품에 안고있는 신념의 산악, 승리의 표대이다. 바로 백두산을 더 잘 알고 백두산을 보기 위해, 백두산공기로 숨을 쉬고 백두의 넋과 정신으로 자신을 정화시키며 백두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기 위해 온 나라가 여기 혁명의 성산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다그치고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빛내여가시는 백두의 행군길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승리를 약속하고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을 앞당기는 불변의 진로이다. 여기에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두의 신념으로 승리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가 그대로 응축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신념으로 걷는 길이 혁명의 길이고 죽어도 버릴수 없는것이 혁명가의 신념입니다.》

지금은 10월이다.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가 마련되고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이 이룩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격동적인 사변들을 안고있는 10월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감격과 기쁨의 달로 깊이 새겨져있다.

백두산바람,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온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때에 맞이한 이해의 10월은 우리들에게 백두의 신념으로 혁명의 길,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걸을 때 우리 당의 혁명위업, 백두의 대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더욱 심오히 가르쳐주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기 위해 온 나라가 걷고있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백두의 행군길을 앞장에서 헤치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난해 11월 30일부 《로동신문》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이 정중히 편집되였다.

단순히 북방의 한개 군에 대한 범상한 현지지도가 아니였다. 그것은 백두산을 찾아가시는 길이였다.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더욱 붉게 물들이고 백두의 넋과 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시기 위해 광풍을 맞받아 앞장서 헤치신 력사적인 백두의 강행군길이였다.

백두산을 바라보며 걸으신 그 길은 결코 헐한 길이 아니였다.

강산같이 내려쌓인 눈이 허리를 쳤고 뼈속까지 스며드는 모진 추위가 대지를 꽝꽝 얼구었다. 때없이 몰아치는 사나운 눈보라며 아슬아슬한 위험이 뒤따르던 거울같은 빙설길, 분초를 쪼개가시면서 진행하신 수많은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

어찌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좋은 날에 오시여도 되시련만 굳이 백두산바람을 맞으시며 삼지연에로의 강행군길을 단행하시였는가.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여진다!

백두의 붉은기신념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그 불같은 결심과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삼지연으로 향하시였던 사연깊은 걸음을 마두산혁명전적지에로 이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때 마두산혁명전적지답사로정의 첫 구호문헌인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앞에 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구호문헌의 글발들을 한자한자 새겨보시다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문헌은 수령님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정말 훌륭한 구호문헌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습니다.》

뜻깊은 지난 선군절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실 때에도 혁명적신념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지난 1월에 마두산혁명전적지에 가서 구호나무를 돌아보다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보았는데 아주 좋은 구호이라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백두의 신념으로 흘러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로정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것은 곧 절세의 위인들을 따라 혁명선렬들이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걸어온 장엄한 백두의 행군길이였다.

일찌기 우리 수령님을 한별동지로, 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 따라 조선의 독립을 기어이 룩할 필승의 신념을 굳게 다지며 조선혁명의 닻을 올린 《ㅌ.ㄷ》의 열혈청년혁명가들,

백두산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ㅌ.ㄷ》의 산아들인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은 그 어떤 광풍에도 드놀지 않는 백두의 신념을 지니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그처럼 간고했던 무송원정과 북만원정을 성과적으로 단행하였으며 《로흑산의 전설》과 같은 기적적인 사실들을 수놓을수 있은것도, 시련과 난관을 뚫고 고난의 100여일을 걸어 북대정자에 다달았으며 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던 때 모질게 불어치던 《41년도바람》을 꿋꿋이 이겨낼수 있은것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이 심장마다에서 맥박쳤기때문이였다.

10대의 나이에 혁명적의지를 《ㅌ.ㄷ》의 강령에 담아 피력하시고 20대에는 세계군사강국이라고 자처하는 일제와 맞서 항일대전을 선포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신념은 그대로 투사들, 동지들, 인민들의 신념으로, 의지로 되여 조선혁명이 승리를 향하여 용감히 전진하게 하였다.

혁명가의 신념이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수령을 떠나서 혁명가의 신념에 대해 생각조차 할수 없다. 생의 매 순간순간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여기에 혁명가가 지녀야 할 혁명적신념과 의리의 본질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이 력사에 새겨준 귀중한 철리이다.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과 신념으로 뜻과 정을 나누며 승리의 자욱자욱을 아로새겼다.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는 이 백두의 신념으로 우리 인민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혁명사에서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기초한 혁명적신념으로 싸워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였다.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여 빛나는 조선혁명은 수령과 전사의 지향과 목적, 뜻과 정을 하나로 잇는 뉴대는 바로 필승의 신념, 백두의 혁명적신념이라는것을 이렇게 력사에 뚜렷이 아로새기였다.

성스러운 조선혁명사를 붉은기의 색조로 진하게 물들인 백두의 혁명적신념으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 새로운 주체100년대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기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를 백두산혁명전적지에로 불러주시였다.

우리는 혁명가요 《혁명군의 노래》를 더욱 높이 부르며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합니다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 세차게 울리고있다. 그 맨 앞장에서 수령결사옹위를 총대의 사명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군대의 새 세대 지휘관들이 행군해갔다. 지난 3월 백두의 행군길을 따라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우등불가에서 회상기학습도 하면서 항일의 빨찌산들처럼 밀림속을 헤쳐갈 때 가슴속에 차오르던 새 세대 총대전우의 영예는 얼마나 숭엄한것이였고 백두산눈보라가 피끓여주는 혁명열은 얼마나 뜨거운것이였던가. 백두의 눈보라맛을 단단히 본 그들이 그길로 사상의 무기를 메고 량강도안의 인민들속에 들어가 참신하고 실효있는 항일유격대식사상전의 포성을 울렸을 때 그 반향은 또 얼마나 대단하였던가.

그뒤를 이어 전국의 당책임일군들, 출판보도부문의 기자, 언론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 근로단체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련이어 백두산으로 향하였고 오늘도 찾고있다. 백두의 행군길을 걸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무엇보다도 가슴에 새기고 심장으로 깨달으며 철의 진리로 받아안는것이 다름아닌 백두의 혁명적신념인것이다.

백두의 행군길은 단순한 백두산에로의 답사길만이 아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정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백두의 넋과 정신으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발걸음에 맞추어 최후승리를 향하여 걷는 혁명의 길이 오늘 우리가 가는 백두의 행군길이다.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기 위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우리 인민의 얼굴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걸어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기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력력히 비껴있다. 자기 령도자의 신념으로 심장을 끓이고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군대, 이런 인민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신념이 강한 당은 변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와해되지 않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으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백두의 행군길,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 기어이 강성국가건설승리의 새봄을 맞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한평생 잊지 못해하신 모습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고비마다 우리 수령님께서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으시며 한평생 그려보고 잊지 못해하신 모습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강철의 령장이시였을뿐아니라 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 제일배짱가이시였습니다.》

갓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가 남만원정을 준비하고있던 때였다.

소사하 토기점골의 초가집을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떠날 차비를 하시며 신발끈을 조이고계시였다.

이때 어머님께서는 남자의 주머니에는 정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20원을 수령님께 주시였다.

어머님의 풍랑세찬 일생이 압축된것 같은 그 돈의 무게때문인듯 몸의 균형을 잃고 토방밑에 내려서시는 수령님,

병색이 짙은 얼굴에 애써 미소를 지으시는 어머님과 작별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 걸음을 내디디시자 뒤에서는 방문닫기는 소리가 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구밖으로 나가지 못하시고 돈 20원을 손에 쥔채 집둘레를 돌기 시작하시였다.

중환에 계시는 어머님을 두고 원정을 떠나게 된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미여질것 같으시였다.

복잡한 상념의 조각들이 구름처럼 피여오르는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둘레를 세바퀴째 돌고계시였다.

집둘레를 돌고도시는 그이의 발걸음을 멈춰세우며 방문이 활짝 열리였다.

뒤이어 집걱정을 하기 전에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어머님의 준절한 말씀이 울리였다.

천둥소리와도 같이 울리는 말씀에서 수령님께서는 강직하고 숭고한 어머님의 기개와 넋을 보시였다.

참으로 훌륭하고 고마운 어머님을 모시고있다는 자랑으로 가슴이 터져나갈것만 같은 행복감을 느끼신 수령님, 모자를 벗고 깊숙이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신 그이께서는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마을앞에 놓인 나무다리를 건느고나서 고개를 돌리신 수령님의 안광에 멀리 어머님의 모습이 비쳐들었다. 흰옷을 입고 문설주를 짚으신 어머님께서는 멀어져가는 아드님을 지켜보고계시였다.

그 모습은 천리를 걸어 팔도구에 도착한 날 밤 하루도 재우지 않고 그달음으로 림강에 가라고 떠밀어보내시던 때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고 온몸에 불붙는 그 의와 열로 하여 빛나는 강직하고 숭고한 모습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가슴을 그렇게도 드세게 흔들어준 고결하고 강의한 넋이 깃든 어머님의 모습을 스승의 모습, 신념의 표상으로 깊이 간직하시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눈보라천리, 혈전만리의 첫 기슭에서 기억속에 남기신 어머님의 마지막모습이였다.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를 거느리시고 소사하등판을 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인미답의 간고한 혁명의 길을 신념으로 헤치시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그런 곡경에 처할 때마다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을 남만으로 떠밀어보내면서 어머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흰옷을 입고 바래주시던 어머님의 마지막모습을 회고하며 의지를 가다듬군 하였다고 수령님께서는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자신에 대한 사랑의 영원한 표적인 돈 20원과 함께 림종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표상을 어머님으로부터 소중히 받아안으신 이날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시였다.

본사기자 한영민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고있는 답사자들 —삼지연대기념비에서— 본사기자 김철우 찍음

력사의 풍파를 맞받아나가시는 길에서

오늘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이 더욱 강화되여 백두산대국으로 존엄을 떨칠수 있는것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마음의 기둥은 위대한 당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신념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은 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도록 하자면 그들에게 당과 수령이 있는 한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승리에 대한 억척의 신념을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가 한번 나선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나가자면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의지할 기둥이 없으면 자그마한 난관앞에서도 동요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떨어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마음의 기둥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당이다. …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게 하는 마음의 기둥, 불굴의 정신력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뜻깊은 가르치심이였다.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주체96(2007)년 1월 어느날이였다.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에서 군인교양에 필요한것들을 훌륭히 갖추어놓고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고있으며 모든 군인들을 투철한 혁명관을 지닌 사상의 강군으로 키우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그날 군인회관복도에 게시된 《모든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자로》라는 제목의 교양판을 보아주실 때였다.

동행한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부대의 군인회관복도에 게시하여놓은 교양자료의 내용이 좋다고 특히 군인들이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할데 대한 교양자료의 내용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군인들에 대한 신념교양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총대의 위력은 총쥔 병사의 신념에 있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준 잊지 못할 날들중의 하루였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주체71(1982)년 4월 어느날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의 신념과 관련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혁명은 간고하다고,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수령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수령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수령님을 충직하게 받들어모시였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혁명가는 최후의 순간에도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바로 혁명가의 신념에 대하여 노래하고있습니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가의 지향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하나의 지향,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고가리라는 신념의 맹세가 일군들의 심장의 벽을 세차게 두드렸다.

본사기자 리금분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승리의 한길로 향도해나가는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력사의 온갖 풍파를 헤치며 조선혁명과 인류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해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이다.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는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79(1990)년 10월 3일 로작이 발표될 당시 세계사회주의운동은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고있었다.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지닌 우리 당의 임무가 보다 무거워지는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이 로작을 발표하시여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이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로숙하고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당,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당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시대와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당의 위대성은 곧 령도자의 위대성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20여년간은 조선로동당이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비상히 강화발전되여온 불멸의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었으며 당의 전투적위력이 천백배로 강화되고 그 존엄과 권위가 힘있게 떨쳐지게 되였다.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당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대원수님들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100% 계승완성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현명한 령도가 있어 장군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업적이 굳건히 고수되고 우리 당이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동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향도자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이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자면 당의 지도사상을 확고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안에 오직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만이 꽉 차넘쳐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신것은 전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끝없는 충정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였으며 전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였다.

주체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는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 대회를 계기로 당안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가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는 드센 사상전속에서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당의 전투적위용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우리 당은 전당이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강철의 당이다.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백승의 담보이다. 당의 활동에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행동의 통일성은 유일적인 령도를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 때 당은 불패의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시고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당세포강화를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도록 하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사상사업을 중시하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어 우리 당과 혁명대오는 령도자와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 그 전투력은 더욱 백배해지고있다. 전당에 유일적령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여 당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조직인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규률과 전투적기풍이 차넘치고있는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참모습이 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의 정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어머니당이다.

당의 불패성의 담보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자기의 령도적지위를 끊임없이 높여올수 있은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왔기때문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중은 당이 의거하고있는 대중적지반이며 우리 당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야 할 영원한 동행자라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은 격정의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혁명대오에 세워주는 품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품이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평범한 사람들도 조국이 아는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고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로력혁신자, 위훈자로 키워주는 자양분으로 되고있다.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과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전투적구호이다.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시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는 천백배로 다져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승리의 한길로 향도해나가는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오수경

북남선언을 거역하고 사대매국, 동족대결에 매달려서는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의 파국상태가 더욱더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있는 엄중한 시기에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7돐을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평양에서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힘있게 과시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진로를 밝혀준 특기할 민족사적사변이였다.

10.4선언이 발표됨으로써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고 조국통일운동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그러나 민족반역무리인 리명박《정권》에 이어 등장한 박근혜《정권》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하여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환희와 락관을 북돋아주던 6.15시대의 경이적인 사변들은 아득한 과거로 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적대와 대결의 험악한 랭기가 무겁게 감돌고있다.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북남사이의 모든 합의사항들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고있는 박근혜패당은 최근에는 유엔에서 우리의 핵과 《인권문제》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정면도전함으로써 드디여 추악한 대결적본색을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박근혜의 망동을 《대화의 문을 닫아맨 추태》, 《대결정책의 최고정점》 등으로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파국에 빠뜨린 역적패당을 준렬히 단죄규탄해나서고있다.

오늘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의 련속되는 무모한 도발로 하여 폭발전야의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있으며 그 전도는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게 되였다.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로 뜻과 힘을 합쳐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정당한 북남선언이 있으면서도 이처럼 북남관계가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사태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력사적인 10.4선언발표기념일을 맞으며 북남공동선언들을 무참히 유린말살하고 북남관계를 극도의 파국상태로 몰아가고있는 괴뢰패당에 대한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합쳐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한다.

1. 민족의 총의를 반영한 북남선언들을 거역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것이며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의 출발점이며 시금석이다.

새 세기 북남관계의 변천사는 북남쌍방이 공동선언에 충실할 때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유린하면 걷잡을수 없는 대결과 파국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우리 민족의 유일무이한 통일대강이고 실천강령인 북남선언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것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도전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죄악으로 된다.

박근혜《정권》은 말로는 북남선언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떠들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요, 《드레즈덴선언》이요 하는 대결각본들을 들고나와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무참히 말살하고있다.

10.4선언이 리행되면 남조선당국이 입이 닳도록 떠드는 《협력사업》이니, 《기반구축》이니 하는것들도 자연히 해결되게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선언리행을 한사코 거부하고 외면하고있는것은 《흡수통일》을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이 6.15시대에 쌓아놓은 관계개선의 기초와 성과를 말살하고 오가잡탕의 《대북정책》을 고집할수록 대결광신자로서의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 000》이 흉악한 동족대결정책으로 락인된것처럼 박근혜패당은 저들의 극악무도한 《대북정책》이 어떤 악명을 쓰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지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북북공동선언을 무참히 짓밟고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대결을 일삼는자들은 누구이든 가장 수치스러운 역적의 패쪽이 붙어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것이다.

2. 민족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침해하는 추악한 사대매국망동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북남선언들에 관통된 근본정신이다.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는것이야말로 자기 민족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비굴한 처사이다.

더우기 조선반도를 둘러싼 패권다툼이 날로 치렬해지고있는 오늘 외세에 빌붙어 통일문제를 해결해보려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롱락물로 내맡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로 된다.

박근혜패당이 기회만 생기면 체면도 창피도 무릅쓰고 외세에게 민족문제를 청탁하는 구차한 놀음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지금도 박근혜와 그 졸개들은 해외를 뻔질나게 싸다니며 민족의 긍지이고 자랑인 우리의 자위적핵을 《폐기》시켜달라고 목이 터지도록 구걸질해대고있으며 남조선을 민생의 불모지, 《현대판야만사회》로 전락시킨 주제에 우리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국제화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국에 《통일준비》를 할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아양을 떠는 가련한 친미주구도, 그 어떤 현실성도 없는 《세계평화공원》이라는것을 유엔에까지 들고가 도와달라고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요사를 부리는 매국배족무리도 다름아닌 박근혜패당이다.

북과 남이 마주앉아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를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론의조차 할수 없고 상전의 지시가 없이는 북남관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남조선당국의 친미굴종자세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것이다.

이러한 극악한 사대매국행위가 통일은 고사하고 온 겨레에게 더 큰 불행과 재난을 몰아올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찬란한 문화와 력사, 슬기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절대로 외세에 자기의 운명을 내맡길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무엇이나 외세에 의거하여 명줄을 부지하려는 미개하고 어리석은 망국병을 버리고 이제라도 반민족적인 사대매국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반도를 외세의 제물로 섬겨바치려는 미국과의 무분별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은 하루빨리 종식되여야 한다.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동족대결을 청탁하는 역겨운 외세추종놀음도 그만두어야 한다.

3.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극악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다.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적대행위는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는 기본요인이다.

우리는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에 서로 적대행위를 중지할것을 거듭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동족을 모해중상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괴뢰패당의 적대행위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부터 앞장서서 로골적으로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망동을 부리고있는가 하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주에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을 동원하여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일삼고있다.

역적패당이 《표현의 자유》이니, 《자률적행동》이니 뭐니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적대행위가 초래할 파국적후과도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넉두리에 불과하다.

내외가 현대판《유신》파쑈독재체제라고 비난하고있듯이 저들에게 불리하면 불법, 무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소한 반《정부》적요소도 가차없이 짓뭉개버리면서 그 무슨 《체제특성》이니, 《법적근거》니 뭐니 하는것으로 동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비호두둔하는것이야말로 집권자들자신이 누구보다 체제대결에 환장해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박근혜집권패당이 주동이 되고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들이 둘러리가 되여 강행하는 대결광대극이 계속되는 한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수습할수 없으며 그것은 곧 역적패당의 자멸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용서치 않을것이며 가장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대화》를 운운할것이 아니라 집권자들자신부터 동족을 모해하고 중상하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온갖 잡쓰레기들의 반공화국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손잡고 함께 나갈것이지만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그에 도전해나서는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보려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도전하여 끝끝내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임기내내 가증스러운 동족대결을 일삼다가 민족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리명박역도의 전철을 밟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북남선언을 거역하고 사대매국, 동족대결에 매달려서는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통일의 변함없는 리정표로 삼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며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우리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아무리 악랄하다 해도 애국애족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만난을 이겨내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것이다.

주체103(2014)년 10월 2일
평 양

우리의 장한 체육선수들처럼 완강히 싸워 전력증산의 동음 더 높이 울리자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당정책관철의 척후병, 기관차가 되여

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는 대오의 맨 앞자리이며 일군들은 생눈길을 헤쳐나가는데서 척후병이 되고 화선에 나가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북창이 들끓는다. 나라의 대동력기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가 창조의 큰숨을 내쉬며 용을 쓰며 일떠섰다.

화선지휘관이 되여

지난 9월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은 즉시 그 관철을 위한 집행대책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당위원회의 모든 당조직정치사업이 공격형으로 편성되고 모든 전투형식이 화선식으로 전환되였다.

기업소안의 모든 당세포들에서 당의 방침관철을 위한 당회의를 일제히 여는것으로 첫 전투의 포성을 울린 당위원회에서는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점령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 정치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부서일군들이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직장, 작업반은 물론 기대들과 개별적사람들까지 맡고 내려가 생산자대중과 숨결을 같이하며 드세차게 일판을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전투지휘처를 사무실이 아니라 생산현장으로 정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현장에서 토의하고 현장에서 포치하며 현장에서 즉시 대책해나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웠다.

얼마전 청년직장을 맡고 내려간 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석탄분쇄기의 일부 부분품들이 걸려 생산에서 애를 먹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지난 시기 같으면 해당 일군들을 통하여 알게 되던 문제였다. 이런 부분품들이 해당 절차를 밟아 공무직장에서 가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주군 하였다.

책임일군은 청년직장 현장에서 걸린 문제를 즉시에 풀어나갈 대책을 세웠다. 전투좌지를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정하고 즉석에서 현장의 실태를 료해하고 풀어나가는 당책임일군의 모습은 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얼마전 전력생산의 첫 공정이라고 할수 있는 운탄직장에서 어려운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당위원회 비서 김순범동무를 비롯한 조직부의 일군들은 전투현장을 타고앉아 전투지휘를 신속정확히 하여 석탄보장을 제때에 따라세우게 함으로써 생산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주강직장에서 생산되는 뽈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종전보다 2배로 끌어올렸으며 발전기들의 보수기일을 훨씬 단축한것을 비롯하여 전력증산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현장에서 화선식으로 전투조직과 지휘를 실속있게 짜고든 결과이다.

전투장을 통채로 정치사업의 무대로

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전투장을 통채로 화선식정치사업의 무대로 전환시키고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드세게 들이대도록 하였다.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았을 때였다.

어떻게 하면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전력증산투쟁에로 총폭발시키겠는가를 놓고 사색을 거듭하던 당위원회 비서 허승규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기 위한 방송정론을 새롭게 만들기로 결심하고 집필전투에 들어갔다.

사상성과 전투성, 호소성이 강한 방송정론을 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다.

그리하여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북창로동계급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는 방송정론이 훌륭히 완성되게 되였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방송선전차의 역할을 높여 중요전투현장들마다에서 방송정론을 통한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동시에 기동예술선동대활동도 잘 배합하여 선전선동공세의 위력을 높이였다.

기업소구내의 첫 입구에 전개된 직관판에는 당앞에 다진 맹세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신념의 글발을 큼직하게 새기였다.

직장별소묘전시회, 글작품전시회, 소보전시회 등을 자주 조직하고 여기서 당선된 우수한 작품들을 종업원들이 누구나 다 볼수 있게 정문가까이에 게시하였다.

선전선동부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얼마나 특색있게 하는가 하는것은 제대군관들과 제대군인들의 분렬행진을 놓고도 알수 있다.

온 기업소종업원들이 지켜보는 속에 보무당당히 나가는 분렬행진대오, 그것은 제대군관, 제대군인들에게는 어제날의 총쥔 병사의 자각을 다시금 백배해주었고 종업원들에게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전력증산투쟁에 한몸바쳐갈 맹세를 더욱 굳혀주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은 물론 그 가족들도 전투장들에 달려나와 전력생산자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성심성의껏 지원하였다. 이 모든 사업이 그대로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여 련합기업소가 당이 제시한 1단계 전력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자랑찬 성과를 낳게 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말로써가 아니라 불같은 헌신으로 대답할줄 아는 북창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영웅적투쟁으로 하여 대동력기지에서는 결사관철의 불길, 기적창조의 불길이 더욱더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비약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

은을 내는 고압전동기수리기지

최근에 전기보수직장에 절연물생산기지가 새롭게 꾸려졌다.

한개 운영호기의 정상가동을 위해 필요한 크고작은 전동기들은 무려 수백대나 된다.

그 대부분이 고압전동기들인것으로 하여 그 수명은 운영호기들의 정상가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전력공업성 책임일군들은 전기보수직장의 로동계급속에 몸을 잠그고 고압전동기수리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그 과정에 기업소자체로 생산하는 절연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것이 중심고리라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그들은 지체없이 어느 한 송배전단위에서 절연물연구를 해오던 기술자를 찾아내여 그가 기업소기술집단과 힘과 지혜를 합쳐 절연물의 질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절연물생산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철판을 비롯한 20여종에 120여점의 각종 부속, 자재들을 성적인 힘을 집중하여 기업소에 보장해주었다.

새로운 절연물생산기지가 꾸려진 결과 지금 직장에서 수리하는 각종 고압전동기들의 수명은 종전의 6.5배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였다고 한다.

결국 운영호기들의 정상가동시간은 증가되여 적지 않은 전력증산예비를 찾아낸것으로 되고있다.

호기당 출력제고에 이바지하는 성과들

같은 연료, 설비조건에서 전력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운영중에 있는 호기들의 출력을 높이는것이다.

기업소일군들은 성일군들의 방조밑에 그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하나하나 착실히 집행해나가고있다.

모든 열설비들과 각종 도관들에서 열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작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여기서도 기본은 보이라점화띠부분의 보온재입히기를 철저히 하는것임을 자각한 보수부문의 로동자들이 분발하고있다.

그들은 호기들의 중보수, 주기보수때에 이 부분에 대한 보온재입히기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가고있다.

대부분의 호기들에서 이 작업이 끝났으며 동시에 각종 도관들에 대한 보온작업의 많은 몫이 수행됨으로써 지난 시기에 비하여 보이라의 효률은 높아지고있다.

급수뽐프의 기술적성능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타빈을 돌리는 증기압력을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작용을 하는 급수뽐프의 축과 날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성적인 작전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한편 타빈보수직장에는 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해당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초정밀주형에 의한 급수뽐프날개생산기지가 꾸려졌다.

날개의 정적균형까지 정확히 보장할수 있는 지구장비들도 갖추어놓은데 기초하여 자체의 생산기지에서는 초정밀주형법으로 적지 않은 날개들을 생산하였다.

시험적으로 급수뽐프들에 도입해본 결과 뽐프의 기술적성능이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개선되고 날개의 수명도 늘어났다.

기업소에서는 운영호기들이 늘어나는 조건에 맞게 공업용수 및 순환수공급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내밀어 전력증산의 보다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현지보도

《병기창》이 들끓는다

주강직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여기는 증산전투에 필요한 자재보장에서 《병기창》의 역할을 맡고있는 주강직장이다.

증산의 동음이 그칠새 없는 이곳 생산현장에서 지금 뽈생산을 담당한 로동자들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작업장의 첫 입구에 자리잡은 유도로에서 붉은 쇠물이 단김을 내뿜으며 부글부글 끓고있다.

천정기중기가 쇠물바가지를 가져다대자 서성철동무의 조종에 따라 육중한 유도로가 서서히 기울어진다. 눈부신 불꽃을 날리며 쇠물이 쏟아져내리더니 잠간사이에 한가득 담긴다.

맞은켠의 뽈련속주조기를 향해 로동자가 길게 드리운 조종판의 단추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천정기중기로 쇠물바가지를 날라온다. 직경이 큰 회전장치의 원둘레를 따라 줄지어 자리잡은 거푸집들에 쇠물이 일정한 속도로 떨어진다. 거푸집들이 련속 랭각장치를 거친다.

작업반장 권인철동무와 홍정철, 김금혁동무들이 재빠르게 일손을 놀리는 속에 거푸집들이 차례로 뒤집히며 뚤렁뚤렁 뽈들을 떨군다.

방금 만든 뽈들이 은백색으로 반짝이며 무드기 쌓인다.

《지금 주강직장의 기능공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새로운 뽈을 리용하면서부터 종전보다 강도가 높고 수명이 3배이상이나 되는 뽈을 만들어내고있습니다. 새로 제작해낸 뽈들로 석탄미분의 량과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보이라들의 연소효률을 훨씬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이곳 련합기업소 지배인 김영철동무가 손에 든 뽈을 보여주며 자랑담아 하는 말이다.

주물모래를 리용하던 이전의 방법을 대담하게 버리고 금형에 의한 련속주조방법을 새로 받아들일 목표밑에 여러가지 장치들과 부분품들을 자체로 제작하면서 뽈련속주조기를 생산에 성과적으로 도입한 이들이다.

또한 종전보다 뽈생산량을 2배이상으로 늘이면서도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석탄분쇄설비를 오랜 시간동안 가동시킨 후 뽈을 대비해본데 의하면 다른 단위에서 만든 뽈은 어른주먹만 하던것이 밤알만큼 작아졌지만 이들이 제작한 뽈은 끄떡없이 본래의 크기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증산총돌격이다.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운영직장들의 로동계급이 혁신의 앞장에서 번개쳐 내닫는다.

번개쳐 내닫자, 당이 제시한 증산목표점령에로

운영직장들의 로동계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4직장 13호기의 전력생산자들이 최대로 만부하를 걸었다.

종전보다 발전기의 출력을 1.3배이상으로 높이는 자랑을 떨친 이들이 더 높은 증산목표를 내걸고 매일 생산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9월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16호기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기세를 올린다.

직장별사회주의증산경쟁이 치렬하다. 남먼저 3.4분기 전력생산과제를 한주일이상이나 앞당겨 완수한 청년직장 4호기의 전투원들이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며 생산돌격전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한다. 3직장과 2직장의 운영호기들에서도 승부를 다투며 증산열기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허나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도 결코 간단치 않다.

4직장의 15호보이라와 타빈발전기에서 뜻밖에도 여러개의 이상요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가?

무겁게 짓누르는 물음앞에 이곳 로동계급은 실천으로, 육탄정신으로 대답했다. 담당기사들인 김충길, 정두성동무들이 과학기술적인 방안을 내놓아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직장장 김성남동무와 기능공들이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제기되는 정비과제들을 짧은 시간동안에 해제낄 때 김영선동무를 비롯한 습식작업반원들이 집단주의위력으로 수평연도의 보수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여 4직장의 운영호기들은 순간도 증산의 숨결을 멈추지 않았으며 마침내 이곳 로동계급은 맡겨진 전력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어찌 이뿐이랴.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운영호기들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는 담당기사 정경수, 손문일동무를 비롯한 청년직장의 기술자, 로동자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간직하고 종전보다 발전기의 아글타글 애쓰고있는 2직장의 안명삼동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9월 전력생산과제를 기어이 완수한 6호기의 전력생산자들…

비록 겉모습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조국의 큰 짐을 남먼저 자기들의 두어깨에 걸머지고 진펄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보다 뜨겁다.

정녕 당의 전투적호소에 오직 자랑찬 실천과 높은 실적으로 화답하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들이야말로 조국이 바라고 인민이 바라는 진짜애국자, 참된 로동계급인것이다.

《송풍, 배풍상태 좋다. 증기압력 정상!》

《미분탄공급량 증가. 송풍기의 회전수를 보장하라.》

발전설비의 대당 출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에 새로운 불이 지펴졌다.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않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전력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백두령장따라 최후승리의 축포성 터쳐올리리라

노래 《승리는 대를 이어》를 들으며

당창건기념일이 아로새겨진 10월의 하늘가에 온 나라를 끓게 하는 승리의 뢰성이 터져올랐다.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 쟁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안고 결승경기에 나선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은 경기소식으로 잠 못 들던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환희와 격정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오늘의 승리는 세기를 이어 백승만을 떨쳐온 우리 조국의 승리의 전통과 오직 승리만을 위해 싸우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남김없는 시위이다.

승리의 소식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초소와 일터마다에 노래 《승리는 대를 이어》가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이 명곡에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남다른 긍지와 함께 승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상이 담겨져있다.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길 걸어왔다

화려한 수식사는 없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새겨왔고 승리의 전통을 생명처럼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이 구절처럼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말은 없다.

승리, 그것은 나라와 민족이 누릴수 있는 최상의 영예이고 영광이다.

바로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 조국은 세기를 이어 이룩하였으며 오늘날 천만군민은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승리로 빛내이지 못하면 침략자들에게 유린당하게 되고 세월의 이끼에 덮이게 되는것이다. 이것을 우리 민족은 일제의 발굽밑에서 피로써 절감하였다.

망국노의 수치로 하여 생을 원망하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일제침략자들을 멸망시킨 8.15의 력사적인 해방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수세기를 내려오면서도 지닐수 없었던 민족적존엄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조국의 고지마다에 휘날리던 람홍색공화국기를 추켜들고 전승광장에 들어선 병사들도,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어버이수령님의 승리의 선언을 듣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도 승리자의 감격과 환희에 넘쳐 만세높이 불렀다.

노래 《승리는 대를 이어》는 승리의 력사를 구체적인 생활화폭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헤쳐온 승리의 자욱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밝히고 승리를 위해 바친 영웅전사들의 불멸의 위훈을 례찬한것으로 하여 천만군민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는것이며 승리의 력사를 서사시적화폭으로 그려보게 하는것이다.

노래의 후렴구인 《자랑차다 승리만을 떨쳐가는 빛나는 전통》을 가슴후련하게 부르는 천만군민의 눈앞에 위대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정녕 피흘려 싸워이긴 이 나라 장한 아들딸들의 위훈을 조국의 산과 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승리에 대한 추억도 아름답다. 그러나 내 나라에는 승리가 추억으로가 아니라 산 력사로, 시대의 숨결로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승리의 대전당으로 일떠서고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유명무명의 용사들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비롯한 영생의 언덕에서 오늘도 후대들을 위훈에로 부르고있는것이다.

승리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승리의 전통이 세대를 이어주는 명맥으로 되고있는 조국의 벅찬 현실앞에서 전쟁로병들은 전승을 위하여 바친 청춘을 더없는 영예로 간직하고있는것이며 천만군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에 넘치는것이다.

그렇다.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태양민족의 만년재보이며 백두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선군조선의 앞길에 타오르는 홰불이다.

대를 이어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고 투쟁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신념의 기둥으로 새겨안을수 있는 력사의 철리를 노래 《승리는 대를 이어》는 격동적으로 구가하고있다.

…

성스런 국기우엔 태양의 빛발 눈부시다
그 해빛 백승에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정의의 보검으로 미제의 멸망을 선언할
최후의 결사전에 우리는 떨쳐나섰다
자랑차다 승리만을 떨쳐가는 빛나는 전통
백승의 오직 한길 조선의 길이여라

《성스런 국기우엔 태양의 빛발 눈부시다》, 이것은 노래의 핵과도 같다.

승리의 전통을 존엄으로 새기였어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지 못한다면 영원한 승리로 빛내이지 못하는 법이다.

승리의 이 법칙을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는 물론 미제와의 수십년간에 걸치는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련전련승하는 과정에 신념의 기둥으로 간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이 땅에서는 누구나 승리를 확신하고있으며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떨쳐가고있다.

오늘도 미제는 우리 조국의 남녘땅에서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천만군민의 심장속에는 력사적으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였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였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이 승리의 선언으로 메아리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신 승리의 길을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내 나라의 천리방선은 물론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 이 노래가 승리의 나팔소리마냥 울려퍼지고있다.

당창건기념일을 맞게 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자의 존엄과 긍지안고 이 노래 높이 부르며 조선속도창조의 불바람을 더 세차게 일으켜나갈것이다.

차 수

푸른 숲 우거지고 새들이 날아든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공민적자각으로부터 공장애, 향토애,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마을과 거리, 공장과 일터, 자기 군과 도, 조국산천을 사랑하며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신의주화장품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 몇해동안 공장의 일군들은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목적지향성있게 내밀었다. 일군들은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에 맞게 계획적으로 해마다 많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심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공장에 자체의 양묘장을 꾸려놓고 수삼나무와 평양뽀뿌라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해마다 단계별로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지난 몇해동안에 수십종에 수많은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들을 심고 그 비배관리에 힘을 넣어 공장구내가 말그대로 푸른 숲이 우거지고 온갖 꽃이 만발하는 공원으로 전변되였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새 품종의 잔디도 심고 품을 들여 관리하고있다.

축구장의 푸른 잔디도 볼만하지만 명절이나 휴식일이면 축구, 배구를 비롯한 체육경기로 흥성이는 모습은 더욱 볼만하다.

비누직장, 화장품직장, 치약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서 조성해놓은 포도밭은 과수원을 방불케 하고있다.

푸른 숲 우거지고 온갖 새가 날아드는 공장을 두고 사람들 모두가 공원속의 공장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송 창 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일 아나똘리 돌가체브 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통일애국투사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리재룡동지가 일흔번째의 생일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2일 그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생일상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신념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기나긴 세월 옥중속에서 적들과 싸우며 혁명적지조를 지켜온 통일애국투사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이 담겨져있다.

빈농의 가정에서 태여난 리재룡동지는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야수적고문과 집요한 회유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절개를 끝까지 지켜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하시고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로당익장하여 통일애국투사의 빛나는 삶을 계속 꽃피워나가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오늘은 생일상까지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리재룡동지와 가족, 친척들, 비전향장기수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우리 당의 고마운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운동이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문제,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술혁신의 종자로 찾아쥐고 연구를 심화시켜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두뇌전, 기술전을 드세차게 벌리며 정광생산에서 걸린 기술적문제들을 과감히 풀어나가고있다.

박경일, 라충성, 조성룡, 리철준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현장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합심하여 회전식착정기운영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설비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또한 차수리분공장에 있는 열처리로의 조종을 자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50여차례의 시험끝에 자체의 원료를 가지고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는 새 기술혁신과제를 성공시켜 로천분광산에서 생산을 부쩍 올릴수 있게 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투쟁속에서 빛내여나가고있다.

김철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주체철용광로와 해탄로를 비롯한 설비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3대혁명소조원 김룡준동무는 우리 당의 3대혁명전위라는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규소티탄과 카바이드동시제조방법을 완성하였다.

청진제강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새로운 자소전극과 절연철생산방법을 비롯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현실에 받아들여 철생산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최첨단돌파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김동명, 주철진, 박영찬, 오경원, 김학범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신포향주철직장에 있는 중주파유도로를 기업소자체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였으며 열처리직장에 있는 4개의 로에 새 기술을 받아들여 열효률을 높이였다.

락원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가 있은 때로부터 몇달어간에 50여건의 새 기술혁신과제를 완성하여 굴착기의 질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비료생산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심태일, 최영미, 리충일, 김룡휘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발생로직장의 어느 한 설비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어 생산능률을 1.2배로 높이였다. 또한 뇨소직장에서 중간생성물을 퍼올리는 뽐프의 보수기일을 줄이고 3페보이라에서 증기생산을 늘일수 있는 새 기술혁신도 성공시키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암모니아직장과 선탄공급직장을 비롯한 생산현장들에서 제기되는 가치있는 기술적문제들도 풀어 기업소의 로동계급으로부터 우리 당에서 파견한 3대혁명소조원들의 일본새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영예군인탄부장식품공장 3대혁명소조원 리주철, 백설동무들은 현장기술자,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박막인장기속도조절장치, 이동식만능수압시험기와 같은 제품생산에서 없어서는 안될 설비들에 대한 기술적개조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을 비롯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전차위치측정체계, 관성식적재이적기 등 생산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성공시켜 탄부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벽성군 서원협동농장, 재령군 재천농장, 연안군 개안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덕천시 평화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기계들을 새롭게 개조하여 농업생산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나갈 자신만만한 배짱과 드높은 신심을 안고 벌려나가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전투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되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박근혜는 짧은 혀때문에 긴 목이 날아난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이미 유엔무대에서 동족을 헐뜯어대며 놀아댄 추악한 대역죄로 하여 온 겨레의 치를 떨게 한 악담질의 능수인 박근혜가 또다시 앙칼진 독설을 늘어놓아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인간생활에서 가장 무서운것은 깨닫지 못한것이라 하였다. 깨닫지 못하면 구제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기때문이다.

박근혜가 인간이라면 초보적인 지각이라도 가지고 마땅히 저지른 죄과에 대해 깨닫고 스스로 반성해보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유엔무대에서 《북핵포기》와 《북인권》타령 등을 늘어놓아 극악한 특등대결광, 현대판매국역적으로 악명을 떨친 그가 9월 30일 또다시 그 무슨 《국무회의》라는데서 우리를 악의에 차 걸고들었다.

지어 《북핵문제》나 《북인권문제》가 마치 우리의 《허점》이고 그것을 걸고들면 불순한 목적이 이루어질것처럼 독설을 내뿜었다.

결국 박근혜는 《북핵포기》와 《북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라고 떠벌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말하자면 《대북정책》이라는것이 실지로는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동족대결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은셈이다.

특히 박근혜는 우리 《인권문제》가 저들이 추구하는 《통일의 주요목표》라고 공언하는것으로 괴뢰당국이 말버릇처럼 줴치는 《통일》이 결국은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동족대결에 열이 뜬 박근혜는 《북의 반발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괴뢰국회에서 10년동안 채택하지 못한 《북인권법》을 통과시키라고 신경질적으로 고아대기도 하였다.

우리는 박근혜가 악청을 돋구어 줴쳐대는 《북핵포기》, 《북인권》복닥소동을 절망에 빠진 가련한 정신병자의 몸부림으로, 비참한 말로를 앞둔 죄인의 단말마적비명으로 대하고있다.

다만 박근혜가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무릅쓰고 동족대결에 더 악착하게 독기를 뿜으며 날치고있는 진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몇마디 언급하자고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미국의 더러운 사타구니에 붙어서라도 제 잔명을 부지하자면 상전의 《북인권》타령에 목소리를 합치는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고있다.

요즘 미국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우리 공화국을 어쩔수 없게 되자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새롭게 들고나오는 도발광기를 부리고있다.

미국이 신성한 인권문제를 다른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의 구실로 악용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고있는 류혈과 참극, 분쟁과 전쟁은 미국의 《인권》소동이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는가를 말해주는 산 고발장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북인권》소동 역시 대조선고립과 압살정책을 보다 악착하게 밀고나가려는 새로운 음모의 산물이다.

바로 이러한 음모가 꾸며지기 바쁘게 박근혜가 치마를 쳐들고 대결바람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드러난 박근혜의 몰골을 보면 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수행의 돌격대마냥 마치 녀인이라는것도 잊은듯 치마바람에 군도를 차고 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돌아치는 정신병자를 련상케 한다.

원래 미국은 우리의 인권은커녕 우리의 주권도 인정해본적이 없다.

박근혜와 그 패당이 이러한 미국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북인권》소동으로 합세해나선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괴뢰들이 《북인권위원회》를 조작한데 이어 《북인권기록전시관》을 세워놓고 그 누구의 《인권침해자료》라는것을 수집전시해놓은것도, 《북리탈주민보호쎈터》라는것까지 만들어놓은것도 다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역시 상전의 《북인권》소동에 가담하는것으로 특등주구로서의 기질을 인정받고 동족에 대해서는 자기가 특등대결광임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있다.

박근혜가 《북인권》소동에 매달리는것은 또한 남조선의 상상 못할 참혹한 인권상을 흑막속에 덮어버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남조선은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극심한 인권불모지로 되고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수장시킨 《세월》호대참사를 저질러놓고도 아직까지 차디찬 랭기를 뿜어대는 박근혜에게 과연 신성한 인권에 대해 주절댈 자격이라도 있단 말인가.

인간증오사상과 약육강식이 골수에 밴 괴뢰군내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의 버릇을 가르쳐준다면서 개흉내를 내게 하고 나중에는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하는 등 천인공노할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해서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이다.

박근혜가 그 무슨 《탈북민》에 대해 《도와주어야 한다.》면서 《인권의 수호신》이라도 되는것처럼 놀아대고있는것도 역겹기 그지없다.

남조선에서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과 반인권적폭행으로 살해야 살수 없어 떠나는 이주민이 공개된 수자만도 100만명을 훨씬 넘는다.

박근혜는 지난 10년전에 국우보수패당이 《국회》에 상정시킨 《북인권법》을 하루빨리 채택해야 한다고 게거품을 물고 고아댔다.

무엇때문에 《북인권법》이 남조선민심은 물론 정계에서조차 단호히 거부되였는지를 박근혜는 심각히 되새겨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사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북인권》소동이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게 될뿐이라고 락인한지 오래다.

인권문제를 정치적흥계에 도용하는것 그자체가 인권에 대한 가장 란폭한 유린으로 되는것이다.

박근혜가 《북인권》타령을 늘어놓을수록 그것은 렬악한 《남인권》의 실태를 더욱 폭로시킬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인권사무소》가 아닌 《남인권사무소》부터 설치하고 남조선의 비참한 인권문제부터 해결하여 살기가 죽기보다 못해 사람들이 줄줄이 자살하는 참상부터 막으라고 하였다.

남조선의 악몽같은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십분 리해하고도 남을것이다.

박근혜의 속통이 조금이라도 정상이고 돼먹었다면 온 민족의 뜻이 담긴 날카로운 규탄을 찍소리없이 받아들이고 필요한 대책은 세우지 못할망정 더이상 주절대지 말아야 할것이다.

모름지기 몹시 아프고 가슴이 찔려 남모르는 고통속에 헤매일 당사자는 사람이 누려야 할 천만가지 권리를 다 향유하고있는 우리가 아니라 동족앞에 저지른 만고대죄로 늘 불안과 공포속에 마음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 박근혜 자신과 그 패당들일것이다. 박근혜는 아무리 가슴을 쥐여뜯으며 앙탈질해도 인류의 리상향으로 솟구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상을 막을수 없다.

하긴 어려서부터 청와대 안방에서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된 애비만 보고 자랐으며 그 애비가 비명에 횡사한 다음에는 늘 인간사회와 동떨어져 고립무원한 존재로 고달프게 살아온 박근혜로서는 부익부, 빈익빈사회의 《인권》은 알수 있어도 사람중심의 참사회의 참인권에 대해서는 알래야 알수 없을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독 박근혜와 그 패당들만이 두눈을 펀히 뜨고도 미국만 쳐다보며 하늘이 높은지, 푸른지도 모르는 천하바보들이 된것이다.

온갖 구린내나는것만 찾아다니는 개눈깔에는 세상만사가 다 그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 그 더러운 개주둥이에서는 오직 남을 물어뜯기 위해 짖어대는 소리만 터져나오게 되여있다.

미친개 한마리가 온 동네를 불안케 한다고 사람가죽을 쓴 특등대결광 박근혜를 청와대에 들여앉힌탓에 지금 온 남녘땅이 형형색색의 참사와 참극, 불상사의 생지옥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박근혜가 고약한 말대꾸질로 진실을 오도하고 정의로운 민심을 외면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속에 《북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의 독설은 우리에 대한 《흡수통일》야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선포로 된다.

박근혜는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여 참된 삶을 향유하는 사회주의제도가 좋은가, 아니면 미국의 식민지에서, 《유신》독재가 되살아난 인권동토대에서 짓눌려 사는 비참한 인생이 나은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사람들은 이미 박근혜를 사람으로 취급하기를 포기한지 오래다.

어느 누가 개주둥이에서 진귀한 상아를 기대하겠는가.

박근혜는 짧은 혀때문에 긴 목이 날아난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인간명단에서 제명된 박근혜는 또다시 동족대결의 악담질로 비참한 말로를 더 앞당기게 되였다.

언제나 앞채를 메고

명천군 마산협동농장 제4작업반은 알곡생산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도 농장적으로 앞선 단위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작업반장 최영주동무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는 거름생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그리고 모든 영농공정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작업반원들을 알곡증산에로 불러일으켰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작업반의 모든 포전들이 옥토로 전변되고 작업반은 해마다 알곡생산에서 농장적인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그는 작업반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작업반에서는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새로 번듯하게 꾸렸고 포전도로들도 품을 들여 정리하였다. 그는 농장원들이 살림집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생활하도록 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로농통신원 김 성 철

우리 나라 외무상과 로씨야외무상 회담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쎄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련방 외무상의 회담이 1일에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 일행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상대측에서 외무성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호상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한편 이날 리수용외무상은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캄보쟈대사관 성원들 백석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옵 씨싸와다 주조 캄보쟈왕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일 신천군 조선캄보쟈친선 백석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을 도와 벼가을을 하였다.

쉴참에 그들은 이곳 농업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농장의 올해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몽골을 방문하였던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귀국

몽골을 방문하였던 김을호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이 2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김광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과 주조 몽골 대사관성원들이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어머니조국은 축하의 꽃다발을 안고 기다린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거둔 승리의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인민들

공화국기발을 더 높이, 더 자랑차게 휘날리리

체육부문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온 나라가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속에 드세찬 체육열풍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련일 거두고있는 격동적인 승전소식과 더불어 내 조국의 또 하루가 밝아오고 낮에 밤을 이어 사람들모두가 체육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희망에 넘친 새날을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체육인들이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벼리고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돌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우에 펼쳐진 오늘의 환희로운 현실에 대하여, 더욱 창창할 내 조국의 앞날에 대하여 체육부문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승리의 금메달로 긍지높이 빛내이는 우리 체육인들의 혁혁한 성과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져 온 나라는 말그대로 격정의 도가니로 변하였다. 이 경이적인 현실을 대하는 체육부문 일군들의 심정은 더 말할것 없다고 생각한다.

체육성 부상 원길우: 참으로 체육부문의 일군으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끝이 없다.

우리 선수들의 환희로운 승전소식, 금메달소식들이 거의 매일같이 전해질 때마다 체육성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 온 나라 각지에서 축하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나의 손전화기도 그 축하전화로 하여 불이 일 지경이였다.

어찌 그때뿐인가.

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종목별경기를 하는 시간이면 각지의 초소와 일터들에서, 거리와 마을들에서 사람들모두가 승리의 소식을 기대하며 말그대로 온 나라가 조국을 빛내이는 경기장을 함께 달리는 심정으로 부강조국건설을 더욱 다그쳐온 그 벅찬 숨결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느끼였다.

그럴수록 우리 체육부문 일군들은 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이 크나큰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훈련의 나날에 다지고다진 슬기와 용맹을 힘있게 파시하며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치리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가다듬군 하였다.

력기와 체조, 레스링과 사격, 권투경기들에서 이룩된 혁혁한 전과도 그렇고 지난 10월 1일 밤부터 이 땅을 더욱 뜨겁게 달군 녀자축구선수들의 우승소식도 체육인들뿐아닌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함께 안아올린 선군조선의 빛나는 승리의 열매들이다.

기자: 옳은 말이다. 더우기 이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거둔 하나하나의 성과들이 다 주체체육발전사에 새로운 페지를 장식한 격동적인 승리들인것으로 하여 더욱 감격이 크다고 본다.

체육성 국장 방문일: 그렇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에 남조선땅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이겨도 크게 이기고있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로력영웅으로, 인민체육인으로 성장한 남자력기선수들이 대회시작부터 련일 통장훈을 불렀다.

엄윤철선수는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조국의 첫 금메달을 안아올렸다. 김은국선수 역시 남자력기 62kg급경기에서 아시아경기대회기록과 아시아기록, 세계기록을 갱신하면서 선군조선의 승전포성을 련이어 터쳤다.

이에 발맞추어 리정화선수와 김은주선수와 같은 녀자력기선수들도 자기 몸무게급경기들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단연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체조 녀자조마운동과 평균대운동에서 각각 1위를 한 홍은정선수와 김은향선수의 자랑찬 성과도, 남자자유형레스링 57kg급경기와 남자개인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 녀자권투 75kg급경기에서 각각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정학진, 김지성, 장은희선수들의 위훈도 벅찬것이다.

특히 대다수가 새 세대 축구선수들인 우리 녀자축구팀이 결승전에서 녀자월드컵과 아시아컵을 다같이 보유한 일본팀을 3: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타승하고 이번 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단연 우승한 성과는 온 나라에 더욱 세찬 격동의 파도를 일으킨 가슴후련한 승리이다.

기자: 위대한 당의 령도아래 펼쳐지고있는 주체체육발전의 휘황한 앞날을 확신케 하는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체육인들이 거두고있는 성과들의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원길우: 우승의 소감과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금메달을 쟁취한 순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제일먼저 안겨왔다, 그이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경기마다에서 련전련승할수 있었다고 한 엄윤철선수도 그렇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이 승리의 금메달을 꼭 제일먼저 보여드리고싶다고 긍지높이 웨친 김은향선수를 비롯한 자랑스러운 우승자들모두가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그 환희의 시각에 한목소리를 터쳤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세계마라손녀왕으로 이름떨치며 람홍색공화국기를 자랑차게 빛내인 그 영예의 단상에서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달렸다고 웨친 정성옥영웅의 신념의 목소리가 세기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새 세대 체육인들의 심장에서 더욱 힘있게 터져나오는 이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주체체육발전의 비결이 있고 더욱 밝은 앞날이 비껴있다.

언제나 주체체육발전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그대로 나라일에 바쁘신 속에서도 이번 경기대회를 앞두고 우리 남, 녀 축구선수들의 검열경기도 몸소 지도해주시기도 하시며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키워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더욱 키높이 자라 승리의 단상에 련이어 올라선 우리 선수들이다.

이번 성과에 크게 고무된 각지 체육인들이 더욱 분발해나섰다.

뿐만아니라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드세차게 일어번지고있으며 그 드높은 열기가 평양에서 진행되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서도 그대로 차넘치고있다.

우리 체육부문 일군들과 체육인들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를 통하여 비약의 길을 더욱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으며 나라의 체육을 하루빨리 보다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 선군조선의 승리의 기치인 람홍색공화국기를 더 높이, 더 자랑차게 휘날릴 신심에 넘쳐있다.

기자: 그렇다.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태양복이 있어 주체체육의 앞길은 끝없이 창창하다. 영원한 태양의 빛발따라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지는 이 땅우에 명성높은 체육강국도 사회주의강성국가도 긍지높이 솟구쳐올라 조국과 민족의 영예와 필승의 기상을 누리에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 방문기 ‖

장한 딸을 기다리는 집

축구선수 라은심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려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녀자축구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팀의 주장인 라은심선수의 집을 찾았다.

어머니인 장영실녀성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먼저 들어선 곳은 은심선수의 방이였다. 그가 여러 국내외경기들에서 받은 금메달들과 최우수상 등이 우리의 눈앞에 안겨왔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라은심선수의 아버지 라인구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한 제철소에서 10여년을 일해온 그는 늘 로동계급의 든든한 바통을 이을 아들이 없는것을 아쉬워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은심선수가 소학교 축구반에 들어갈 때부터 확 달라졌다. 어린 은심이는 부모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난 빠른 속도에 공몰기를 배합한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여 어머니조국에 금메달을 안아올테야요.》

청진소녀의 소박하던 꿈이 오늘 현실로 되였다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는 딸애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드릴수 있게 된것이 너무 기뻐 감격의 눈물만 흘리고있다고 하였다.

《지금 내 심정은 녀자축구선수들모두를 얼싸안고 지구라도 돌고싶은 마음이라오.》

아버지의 말을 받으며 가족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어제 밤만 해도 숱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진에서도 오고 제가 복무한 부대에서도 오고…》

동생 라일심동무의 말에 이어 장영실녀성도 아침에 밖에 나서니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저마다 달려와 축하의 인사를 보냈었다며 눈물을 머금었다.

《사실 우리 딸애야 부모들이 키웠습니까. 당에서 키워 인민앞에, 온 세계앞에 내세워주었지요.》

우승의 영예를 지닌 그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안겨주고 영광의 대회장에도 불러주었으며 명절때면 한가슴이 모자라게 선물도 안겨주도록 하여준 어머니당의 믿음과 사랑,

벽면중심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여러상의 기념사진들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지난해 7월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돌아온 녀자축구선수들을 한명한명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들도 찍으시였다.

이 땅에 태여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고싶어하는 영광의 자리에 세번이나 섰던 그 크나큰 행복의 순간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장한 딸을 두었다지만 온 나라가 다 아는 유명한 축구선수 은심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아마도 은심이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랑의 기념사진들을 가슴에 품고 경기장을 달렸을것입니다.》

따르릉— 또다시 축하의 전화가 연방 걸려오고있었다.

사랑과 행복, 축하로 가득찬 그의 집을 나서며 우리는 그려보았다. 조국앞에 값높은 위훈을 세운 병사마냥 긍지높이 집으로 들어서는 라은심선수의 환희에 찬 모습을.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옥별

선군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과시한 미더운 우리의 체육인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은 나라의 위력을 시위하고 대외적권위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련일 거두고있는 자랑찬 경기성과는 온 나라를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 보수2작업반 로동자 리기섭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련속 금메달을 쟁취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가고있는 우리 선수들이 맞다드는 상대들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작업반의 모든 동무들이 너무 기뻐서 환성을 올리군 하였다.

축구와 력기, 권투, 사격 등 여러 종목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은 우리모두를 기적과 혁신에로 추동하는 정신적힘이다. 기업소자체로 하는 직장별대항경기에서 이겨도 승리의 패감에 가슴이 막 설레이는데 제노라고 하는 상대들을 국제경기무대에서 우리 식의 경기전법으로 통쾌하게 이겼을 때 그 환희의 감정은 과연 어떠할것인가.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거둔 체육성과에서 큰 힘을 얻은 우리들은 발전설비정상운영을 더 잘하여 전력증산돌격전의 성과를 확대해나가겠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봉천탄광 혁신1갱 채탄3중대 중대장 조창섭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우승소식에 우리 중대원들모두가 흥분하였다.

우리의 힘, 조선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다시한번 똑똑히 느끼였다.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무대에서 승리하고 공화국기를 날려 조국의 존엄을 떨친다면 우리 탄부들은 탄 한삽이라도 더 캐는것이 국력을 떨치는데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모두가 더 많은 석탄을 캐자고 윽윽하고있다.

우리 중대는 이미 선군절까지 올해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였으며 그 기세로 9월에는 초기계획보다 1 000여t이나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였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우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10월에는 계획보다 두배이상의 석탄을 캐낼것을 결의하고 모두가 신심에 넘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으켜주신 축구열풍, 체육열풍과 더불어 전해지는 우리 체육인들의 승전소식이 석탄공업부문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정말 힘이 솟는다.》

청남구 신리농장 청년축산작업반장 김봉두는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이 일본팀을 타승한 경기를 보고나서 우리 작업반원들모두가 사기충천하여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쾌승의 소식이 련속 전해지니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줄 모르겠다. 우승의 소식은 포전에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력한 정치선동이다. 오늘중으로 벼가을전투를 완전히 끝내고 탈곡도 보름동안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겠다. 축구경기장을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전투장으로 여기고 종횡무진하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친 녀자축구선수들처럼 우리도 한해농사를 결속하는 전투에서 이 땅의 주인,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녀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하여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고 조국에 돌아오는 선수들을 더 큰 로력적성과를 안고 맞이하겠다.》고 말하였다.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 연구사 김군석은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이 정말 장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요즘은 사기가 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시는 위성과학자거리와 현대적인 연구소들이 완공을 눈앞에 두었고 매일과 같이 우리 체육인들의 승전소식인데다가 또 10월 1일에는 원수님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에 보내주시는 사랑의 선물까지 받아안았다. 그런데 또 그날 밤에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우승소식을 듣고 텔레비죤방송을 통해 시청하면서 정말 너무 기뻐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관심과 로고속에 우리의 녀자축구가 일본을 누르고 남조선땅 한복판에서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세계적인 강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기쁘고 눈물이 난다.

승리의 단상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 한피줄을 이은 민족의 승리에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조선은 하나다!〉, 〈조국통일!〉이라고 열정적으로 웨치는 관람자들의 모습을 텔레비죤방송을 통해 보니 북과 남이 하나가 된 강대한 통일조국이 현실로 펼쳐진것만 같아 가슴이 뭉클하였다.

우리 과학자들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는 금메달로 받들어가는 체육인들처럼 과학기술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횡포한 대자연을 길들여나가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전투장도 련이어 전해지는 장쾌한 승전소식에 세찬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철도성려단 중대정치지도원 박영민은 《10월 1일 오후에 불현듯 날아든 녀자권투경기에서의 통쾌한 승전소식에 이어 밤에는 또 텔레비죤방송을 통해 조국의 장한 딸들인 녀자축구선수들이 남조선땅에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는것을 직접 보니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도 끓이던 격정과 환희가 총폭발하였다. 모두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로 부둥켜안고 숙소가 떠나가고 온 세포땅이 진감하도록 만세를 불렀다. 슬기롭고 문명하며 용감한 우리 인민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과시한 정말로 가슴후련한 쾌승이였다.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돌진해나아가는 조선의 씩씩한 기상이였다. 우리는 오늘 아침도 여느때없이 일찌기 일터로 나갔다. 이번 경기들을 통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진짜저력을 더 잘 알게 되였으며 그로 하여 온몸에선 열백배의 힘이 용솟음쳤던것이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은 념려말라. 여기에도 이 땅에 태를 묻고 이 나라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아온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있다. 이 몸이 그대로 방풍림이 되고 한포기의 풀이 되여서라도 세포지구를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꾸려나가는것으로써 체육인들의 장쾌한 승전소식에 화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 5학년 학생 김윤경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이번 녀자축구경기에서의 통쾌한 승리는 우리의 체육인들이 자기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준 우리 조국에 당창건 69돐을 맞으며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녀자축구결승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가슴을 조이며 지켜보았다. 상대가 녀자월드컵을 보유한 만만치 않은 팀이였기때문이다.

그러나 경기시작부터 드센 공격으로 첫 꼴을 멋들어지게 넣으며 경기 전과정을 주도해나가는 우리 선수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니 격동되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으며 주먹을 부르쥐고 마음속으로 선수들과 함께 달렸다.

이것은 나 하나뿐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다음날 아침에 대학교정에 들어서니 온 대학이 이번의 경기성과를 두고 들끓고있었다.

참으로 신심이 넘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이 이렇게 현실로 꽃펴나고있으니 강성국가의 미래는 또 얼마나 창창하겠는가.

나는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사는 대학생으로서 불굴의 정신력으로 남조선땅에 공화국기를 자랑차게 휘날린 녀자축구선수들처럼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분초를 쪼개가며 배우고 또 배워 온 세계에 우리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는 인재후비로 준비해나가겠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우렁이유기농법과 진취적인 일본새

염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염주군에서 우렁이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우렁이유기농법을 도입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룡북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여름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렁이유기농법도입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농장의 논벼포전을 돌아보시면서 농장에 나와 우렁이유기농법을 도입하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 박사도 만나 연구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이날 청년분조에 꾸려놓은 우렁이서식장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염주군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한다고, 우렁이유기농법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렁이유기농법은 우렁이로 논김을 잡고 지력을 높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선진적인 논벼재배방법이다.

우렁이는 수렁이나 논에서 사는 연체동물이다.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중요한것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 우렁이겨울나이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이다.

겨울잠재우기에는 습식 또는 반습식잠재우기방법과 건식잠재우기방법이 있다. 농장에서는 건식잠재우기방법으로 우렁이겨울나이를 보장하고있다.

10월 중순부터 우렁이를 선별하여 서늘한 그늘에서 보름동안 배설물을 내보내게 한다.

그다음 지함이나 싸리바구니에 벼겨나 대패밥, 종이와 같은것을 펴고 그우에 우렁이들을 펴놓는다. 이런 방법으로 지함이나 바구니에 우렁이를 가득 채운다. 이때 방안온도는 9~12℃, 습도는 10~15%를 보장해준다.

룡북협동농장의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선별한 우렁이갑에 감탕을 묻혀 잠재우는 반습식잠재우기방법이였다.

이렇게 잠재운 우렁이를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4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서식장에 넣고 흔한 집짐승배설물들을 균처리하여 먹이면서 키웠다.

무게가 3~5g정도 되게 키운 우렁이를 모내기를 끝낸지 한주일정도 지난 논에 정보당 1만마리정도씩 놓아주었다.

이렇게 하니 논김을 잡는데도, 알쓸이를 하는데서도 효과적이였다.

알쓸이를 하는 우렁이는 물면에서 10㎝정도의 벼아지들에 기여올라 한번에 알을 300~400개, 가을걷이시기까지 1만개정도 낳는다고 한다.

논에 놓아준 우렁이들이 풀도 뜯어먹고 배설물로 땅을 걸구는것은 물론 논바닥에 구멍을 뚫고 들어갔다나왔다 하면서 벼뿌리활성을 높여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량명철, 리영호동무를 비롯한 염주군의 책임일군들은 룡북협동농장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군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우렁이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올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우렁이잠재우기와 양식, 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인식시키기 위한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우렁이양식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떠밀어주었다.

군에서는 지난해에 가을걷이가 끝나자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전반적인 논을 조사장악하고 풀이 많은 포전에는 우렁이를 더 많이 놓아줄수 있게 잠재울 우렁이량을 늘이도록 하였다.

올해 전체 논면적의 85%에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400~500㎏의 논벼를 더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였다.

우렁이유기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그 덕을 보고있는 염주군의 일군들의 창조적인 일본새가 얼마나 좋은가.

특파기자

년간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선봉피복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선봉피복공장에서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려 9월 5일까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맡겨진 년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목표와 과업들을 명백히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원료, 연료보장에 힘을 넣었다. 또한 로력과 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공장에서는 옷가공이 다양화되고 피복설비들이 현대화된데 맞게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기술학습실을 잘 꾸려놓고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기능이 어린 로동자들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게 하였다.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재봉1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설비들을 다루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재봉2, 4, 8작업반의 로동자들도 합리적인 옷가공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서로 돕고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피복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작업반장들은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주었다.

보장작업반들도 혁신을 일으켰다.

재단작업반원들은 재봉작업반들에 재단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기술준비실에서는 옷견본종류를 늘이고 그에 따르는 기술지표들을 제때에 완성하여 재봉작업반들의 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었다.

특파기자 리은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업적

10월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우리 겨레의 마음과 마음들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열화와 같은 경모의 정으로 더욱더 설레이게 하는 뜻깊은 달이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10월 애국애족의 최고귀감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 한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여 우리 민족의 앞길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조국통일운동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진 력사적인 10.4선언은 오늘도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그이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통일애국의 빛나는 업적을 가슴뜨겁게 전해주며 온 겨레를 애국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에 대한 투철한 애국의 신념과 의지, 현명한 령도에 의해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맞이한 우리 민족이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지난 세기에 상상도 할수 없었던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전민족적범위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북과 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각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협력사업, 두동강났던 북과 남의 철도와 도로의 련결, 민족분렬 50여년만에 이루어진 금강산관광, 부산에서 타오른 통일의 열풍, 제주도에서 열린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거세차게 타오른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

6.15자주통일시대의 격동적인 날과 달이 흘러가던 바로 그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여 자주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실 결심을 하시였다. 하여 주체96(2007)년 8월 5일 평양에서는 남조선당국자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가 발표되게 되였다.

우리 장군님 아니시다면 과연 그 누가 이런 대용단을 내릴수 있었으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숭고한 풍모이다. 비록 외세에 의하여 강토와 민족은 둘로 갈라져있어도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 민족, 하나의 조선과 하나의 겨레만이 자리잡고있었다. 이런 확고한 신념, 의지를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피눈물의 그 나날에도, 조국이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끊임없는 전선길을 이어가신 나날에도 조국통일을 위해 어느 하루도 마음쓰지 않으신 날이 없으시였다. 민족사에서 분렬이래 일찌기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져 북과 남은 물론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통일의 날이 왔다고 하면서 희열과 랑만으로 차넘쳤던 6.15의 환희, 통일의 열풍도 바로 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의 장군님께서 안아오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2차 북남수뇌상봉의 성과적실현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10월 2일 분렬사상 처음으로 남조선당국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륙로로 평양에 찾아오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것도, 남측일행에 대한 평양시민들의 화려한 연도환영행사와 영접행사에도 수뇌상봉을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의 행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마음쓰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과 뜨거운 동포애의 정이 깃들어있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4.25문화회관 광장에 나가시여 남측일행을 따뜻이 마중해주신 숭고한 화폭은 오늘도 온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평양을 방문하는 그들을 따뜻이 맞이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우리 겨레만이 아닌 세계가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고 충격과 경탄을 금치 못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도량과 인품에 깊이 머리숙이며 그이의 모습은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다심한 어버이의 모습그대로였다고 감동을 표시하였다.

수뇌상봉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일관된 력사적인 선언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바치신 비상한 정력은 정녕 잊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남조선당국자와 여러 시간동안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며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하며 이번 상봉이 민족적자주성을 확립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좋은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라는것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군사적적대관계를 해소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북남사이의 경제협력도 단순한 경제거래가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업이므로 이것도 역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것을 비롯하여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도 대범하게 풀어주시였다.

남조선당국자는 너무나도 숭고한 그이의 민족자주정신과 무한한 동포애, 애국애족의 열정앞에서 시종 흠모와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는 첫 순간부터 시간이 갈수록 그이께 마음이 끌리고 매혹되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으며 자기의 심정을 환영연회도중에 연락에 나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장수를 빌어 축배를 들것을 제의하는것으로 터치고야말았던것이다.

남측성원들에게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다, 이전시기의 관념과 낡은 유물을 버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킬수 없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은 겨레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언제목에 대해서도 주제를 명백하게 반영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당시 남조선당국자가 수뇌상봉의 정례화를 제안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척집에 갈 때 정례적으로 가는가고 하시며 수시로 놀러 가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국가간 관계에서는 정례적이지만 북남관계에서는 맞지 않는다, 수시로 만나는것이 맞지 않는가고 하시였다. 진정 《수시로》라는 그이의 한마디의 말씀에 천만마디의 말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혈육의 정이 맥맥히 흐르고있었으니 사람들이여, 10.4선언의 문구들을 무심히 대하지 마시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담뒤끝에 남조선당국자가 퇴임후에도 북을 다시한번 방문하고싶다는 무랍없는 청을 드리였을 때에도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무료로 와도 된다고 뜨거운 정을 담아 쾌히 승낙하시였다. 절세위인의 넓은 도량과 인품은 남조선당국자와 그 일행을 끝없는 격정의 세계에로 이끌어갔다.

주체96(2007)년 10월 4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서명하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이렇게 마련되여 세상에 선포되였다. 그 순간은 정녕 우리 민족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자랑스러운 슬기, 드높은 기개를 만방에 과시하고 새로운 21세기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위대한 조선민족의 세기로 될것임을 세계에 엄숙히 선포한 력사적순간이였다.

삼천리조국강토에 통일의 환호성이 메아리치고 온 남녘땅은 다시금 김정일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10월의 력사적사변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판로 10.4선언을 마련》, 《민족의 드높은 통일의지 과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제시》 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울려나온 《최고의 애국자》, 《최고의 민족주의자》, 《박력있고 한번 한다면 하는 기질의 국가지도자》, 《결단력을 갖춘 지도자》, 《장군중의 으뜸장군》이라는 칭송의 목소리들은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터친 격정의 환호였으며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이였다.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열정과 헌신, 불면불휴의 사색과 탐구, 동포애의 사랑은 이 땅우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그것은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승리이고 장군님께서 지니신 높으신 권위와 정치실력, 숭고한 덕망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지난 7년간 우리 겨레는 내외반통일세력의 그처럼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통일애국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장군님께서 헌신의 로고를 바쳐 자주통일의 진군길에 리정표로 세워주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마련해주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애국헌신의 낮과 밤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태양이 없이 밝아오는 려명을 바랄수 없듯이 분렬의 어둠을 가시고 온 겨레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통일의 려명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고있으며 그이의 뜻을 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특등대결광의 본색은 갈데 없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피뢰군이 조작된 날과 관련한 《기념식》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피뢰집권자는 그 무슨 《기념사》라는것을 통해 특등대결광으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다시금 유감없이 드러냈다. 박근혜는 또다시 우리의 《핵포기》를 운운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니, 저들의 그 무슨 《노력에 동참》이니 하는따위의 돼먹지 않은 나발을 불어댔다. 그런가하면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그 누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는것이 피뢰군의 《사명》인듯이 떠벌여댔다. 그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대결망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박근혜가 우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치마바람을 일구며 가는 곳마다에서 대결악담을 쏟아내는것은 그가 동족대결에 명줄을 걸고 완전히 리성을 잃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내외가 평하듯이 남조선피뢰군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국의 투자를 지키는 훌륭한 번견무리》에 불과하다. 상전이 넘겨주겠다는 군통수권마저 그것을 행사할 능력이 없어 받지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허재비들이 새빠지게 그 무슨 《창군》을 기념한다는것자체가 어처구니없는노릇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쏟아져나온 악담들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박근혜가 초보적인 식견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더우기 피뢰들따위가 《핵포기》를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여도 개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것쯤은 알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협상용이나 그 무엇을 얻기 위한 흥정물이 아니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전략적로선이다. 우리의 이 억척불변의 의지와 립장을 박근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무슨 《포기결단》따위를 운운하며 미련하게 놀아대는것은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낼뿐이다. 애당초 미국의 핵무력을 뻔질나게 끌어들이고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인민혈세까지 탕진하며 북침전쟁준비에 광분하는 피뢰들은 그 누구의 《핵포기》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박근혜는 이번에도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그 누구의 《풍요한 삶》이니,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이니 뭐니 하는따위를 가지고 피뢰군의 《사명》이라는 낮도깨비같은 수작질을 하였다.

피뢰집권자가 입만 터지면 내뱉는 《인권》문제란 우리에 대한 적대감에 물젖은자만이 줴칠수 있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외세의 식민지전쟁하수인이 되여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남조선을 처참한 인권페허지대로 전락시킨자들이 신성한 인권을 모독하고있으니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박근혜도 피뢰군안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 남조선 각계의 물의를 일으킨 타살사건과 자살사건, 성추행사건들이 결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것쯤은 알고있을것이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피뢰군에 코를 들이밀고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떠들었으니 그런 행실을 두고 제코부터 씻으라고 말한다.

묻건대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놀음으로도 부족하여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과 국제무대에서의 악랄한 《인권》소동으로 우리를 참을수 없이 모독하고 용납 못할 도발을 걸어오는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도 이번에 박근혜가 우리더러 저들의 《평화통일노력에 동참》하라고 요사를 떨었으니 그래 그 말을 할 때 입이 가렵지 않던가.

우리는 지금껏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최대의 선의와 아량을 보이였으며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피뢰들은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이렇듯 도발적망동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 그것이 북남관계개선의 여지를 철저히 말살하면서 긴장상태를 최악으로 격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동족을 무력으로 해칠 야망만 품고있는 이런 극악한 대결광들에게서 바랄것이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남조선피뢰패당의 대결망동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허영민

외세에 모든것을 내맡기는 비굴한 추태

얼마전 피뢰청와대안보실장 김관진역도가 미국을 행각하였다. 그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재연기이다.

피뢰집권자는 이미 지난 4월 오바마의 남조선행각을 계기로 상전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환재연기문제를 정식 제기하였다. 이어 피뢰패당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6월과 8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놓고 모의판을 벌리였다. 뒤이어 김관진역도가 이번에 미국에 날아가 관련협의를 벌린것이다. 지금 피뢰들은 저들이 독자적인 선제타격체계인 《킬 체인》과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해달라고 애걸하면서 적어도 5~8년 이전에는 넘겨받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리고있다. 미국은 피뢰들의 이런 청탁을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고있다. 그와 관련한 최종협의결과는 이달에 벌어질 남조선미국《년례안보협의회》에서 공식발표되게 된다고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재연기와 관련한 이런 움직임은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피뢰패당의 반민족적이며 호전적인 흉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계속 붙들어두고 그에 의존해 식민지주구로 무한정 비굴하게 살아가려는 그들의 추악한 사대매국적정체를 다시금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하지 못해 안달이 나 하는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더없는 흥정물로 삼으면서 피뢰호전광들을 저들의 대조선침략정책수행의 돌격대로 적극 써먹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현 피뢰집권세력의 비럭질을 지켜보며 외세의존과 북침에 환장한 그들을 더욱 바싹 끌어당겨 군사적종속의 멍에를 든든히 씌우고 북침전쟁도발에로 극구 부추기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들은 조금도 수치를 느낄줄 모르고 미국상전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는 쓸개빠진 망동을 부리고있다. 그야말로 피뢰정치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극악한 매국역적, 식민지주구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피뢰보수패당은 이미 미국에 빌붙어 2012년에 넘겨받게 되여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 받기로 하였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그 무슨 《안보상황》따위를 운운하며 또다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연기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5~8년이후 남조선피뢰들이 또 무슨 구실을 들고나올지 알수 없다. 이런 식으로 피뢰호전광들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영구히 행사하게 하려고 꾀하고있는것이다.

꼬물만 한 민족적자존심도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재연기를 청탁해나선 남조선피뢰들은 그 대가로 평택에로의 미군기지이전합의를 고려할데 대한 미국의 요구를 서슴없이 받아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생활에 이루 헤아릴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동두천과 룡산 등의 미군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2사단과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평택에로 옮기는 문제가 이미전에 합의되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의 장사정포의 위협》을 운운하며 그것을 뒤집고 미2사단의 일부 무력과 련합군사령부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강도적요구를 들고나오고있는것이다. 지난 9월 22일 피뢰군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동두천에 있는 미2사단의 210화력려단을 한강이북에 계속 남겨둘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가 현재 론의되고있다고 실토하였다. 피뢰호전광들은 210화력려단을 남겨두는 경우 그 무슨 《억제력》이 된다고 쾌재를 올리고있다.

지금 피뢰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가 아직 정식 문서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상전의 눈치만 살피면서 무엇이든 다 섬겨바칠 자세를 보이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재연기문제를 둘러싼 상전과 주구의 공모결탁이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과 식민지지배의 강화에로 이어지게 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피뢰집권세력의 친미사대매국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장윤남

남조선공무원로조원 1만여명 피뢰패당의 악정을 반대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공무원로조가 9월 27일 서울역광장에서 피뢰집권세력의 년금개혁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1만여명의 로조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낸 년금학회의 공무원년금개혁안의 부당성을 까밝혔다. 국민년금을 구실로 공무원년금을 낮출것이 아니라 국민년금을 높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피뢰패당의 악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을 가지고 앞으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피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공무원들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 단죄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9월 25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하여 짐바브웨의 경제가 파괴되고 인민들이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과 서방은 제재를 짐바브웨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고 까밝히고 그는 그것을 극악무도한 내정간섭책동으로 락인하였다.

이스라엘의 강점을 끝장낼것을 호소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흐무드 아빠스가 9월 26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강점을 끝장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십년간의 강점을 끝장내고 독립국가창건을 위한 정확한 시간표가 없는 한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유엔안보리사회가 2~3년안에 이스라엘의 강점을 종식시킬데 대한 결의를 채택할것을 요구하였다.

물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아랍나라들이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현재 아랍지역에서 식량생산에만도 2 575억㎥의 물이 리용되고있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년간 물수요량은 지금보다 2배이상 더 늘어나 5 500억㎥에 달할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랍물안전전략을 작성하는 등 지역의 물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에서 가스수송관 건설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록색경제

최근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또다시 경고하였다. 현재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그에 따라 온난화속도가 빨라지고있기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어떤 치명적인 후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있다. 언제인가 한 경제전문가는 《지구온난화는 세계대전이나 경제공황에 못지 않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혼란을 일으킬수 있다. 각국이 당장 매년 국내총생산액의 1%를 지구온난화방지에 쓰지 않으면 앞으로 국내총생산액의 20%에 해당한 경제적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기와장 하나 아끼다가 대들보썩이는 격이 되지 말라는 충고이다. 실지로 먼 장래의 일처럼 느껴지던 지구온난화가 매일, 매시각 무서운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 닥쳐오고있다. 온난화는 지구상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다.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은 점점 더 커가고있다.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에 들어와 2013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액은 도합 2조 5 000억US$에 달하였다.

온난화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 오늘 세계적으로 록색경제, 저탄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가고있다. 록색열풍은 세계경제전반을 휩쓸고있다.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류의 미래를 담보하는 록색경제발전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활발해지는 록색에네르기개발열풍

세계에네르기구조가 다각화되고있다. 온실효과가스를 대량적으로 방출하는 화석연료대신 공해가 전혀 없거나 적은 태양열, 풍력, 지열, 조수력 등 록색에네르기자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에네르기자원수출국이건 수입국이건 너도나도 깨끗한 에네르기개발에 뛰여들고있는것이다.

아랍추장국련방을 실례로 들어보자. 이 나라는 세계적인 원유생산국이다. 원유수출만으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있다. 그러나 아랍추장국련방은 36%로까지 낮추려 하고있다. 《마스다르 씨티》는 그러한 국가전략의 시험장이기도 하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록색에네르기개발이 국가적인 투자대상으로, 중점과제로 되고있다.

꾸바의 마딴사스주에서 2016년까지 실행하게 될 재생에네르기개발전략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주에서는 140개이상의 풍력타빈을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작은 나라인 지부티에서도 지열에네르기탐사 및 연구, 지열발전소건설과 그 운영을 위한 사업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는 등 재생에네르기개발리용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록색에네르기개발과 리용이 빨라질수록 지구의 환경은 그만큼 깨끗해질것이다.

실리가 큰 록색건축

건축업은 세계적으로 두번째로 큰 에네르기소비산업이다. 이 부문에서 에네르기절약화를 실현하면 2020년에 가서 16억 8 000만t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절약하는 에네르기자원은 3 408억US$어치에 달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격이다.

오늘 록색건축은 세계건축발전에서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특히 생태환경파괴가 적고 사람의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록색건재가 주목을 끌고있다.

대표적으로 록색세멘트를 들수 있다. 세멘트제조업은 오염이 많은 산업중의 하나이다. 세계의 세멘트생산기업들이 한해에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10억t이상에 달한다.

세계적인 사탕수수생산국인 브라질에서는 자기 나라에 흔한 사탕수수찌끼를 리용하여 원가가 눅은 새로운 록색세멘트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 세멘트원료는 사탕수수찌끼를 태운 후에 남는 잔류물로서 세멘트속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온실효과가스의 방출을 대폭 줄일수 있다고 한다. 한편 사탕수수찌끼의 가공과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에네르기소비가 적기때문에 록색세멘트는 생산원가가 전통적인 세멘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에 그 사용수명이 보다 길고 속성도 월등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IT(정보산업)분야에서 불고있는 록색바람

록색은 IT분야에서도 하나의 류행으로 되고있다. 몇해전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어느 한 정보통신기술박람회에서는 《록색IT》가 주제로 되였다. 현재 세계에서 에네르기소비량의 장성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로 주목되고있는것이 다름아닌 정보산업분야이다. 《록색IT》전시장에서는 새로 생산된 콤퓨터, 인쇄기 등 사무용전자제품들을 이전의것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에네르기절약효과를 직접 보여주었다. 시험결과 새 설비와 낡은 설비들의 전기소비량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주최측은 박람회에서 대형봉사기와 자료기지의 에네르기절약, 전자제품분야에서 유해로운 부속품의 사용량감소, 낡은 전자제품의 회수와 에네르기절약형전지의 개발 등 《록색IT》기술들을 소개하였다.

현재 IT분야에서는 제품의 에네르기효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으며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에네르기를 절약하도록 추동하고있다.

흥미를 끄는 록색자동차

최근 세계적으로 록색화된 승용차들의 생산이 더욱 늘어나고있다. 유럽에서는 전기자동차바람이 일고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한해동안에 도로의 170개소에 충전소들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충전망의 90%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 하여 전기자동차소유자들은 짧은 시간에 전기자동차축전지를 80%까지 충전할수 있게 되였다.

노르웨이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고있다. 인구가 500만명밖에 안되는 이 나라에서는 도로를 오가는 전기자동차대수가 영국에 비해 3배 많다고 한다. 올해 3월초이래 판매된 자동차가운데서 전기자동차는 1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이산화탄소방출량이 적은 새형의 자동차를 만드는것이 자동차판매량을 늘이는 최상의 방도라고 주장하고있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진행된 제네바자동차전시회에는 90가지형태의 록색승용차가 전시되였는데 이 승용차들은 대용연료를 리용한다고 한다.

앞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것으로 예측하고있다.

록색경제는 지금 세계적범위에로 확대되고있다. 아직은 록색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자금과 로력,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눈앞의 리익만을 따지면서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 손발이 시려한다면 종당에는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록색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발벗고나서야 한다. 오늘의 현실이 이것을 요구하고있다.

20세기가 탄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록색시대로 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전영희

ㄱ-41154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